

# 정형렬 (주)이서이엔씨 대표 “꿈 향해 도전하는 선수들 응원”



정형렬 (주)이서이엔씨 대표이사는 12일 광산구 진곡동에 위치한 (주)이서이엔씨 회의실에서 광주 장애인체육회 발전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 장애인체육 후원금 500만원 기탁...발전위원회 활동

###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포용적 사회 가치 확산 기여

정형렬 (주)이서이엔씨 대표이사가 광주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오전 11시 광산구 진곡동에 위치한 (주)이서이엔씨 회의실에서 정형렬 대표이사로부터 광주장애인체육회 발전후원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광주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 및 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을 통한 포용적 사회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정형렬 (주)이서이엔씨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번 후원금 전달식에는 김현성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사무처장, 정선교 광주시장에인체육회 발전위원회 추진위원장, 정형렬 (주)이서이엔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형렬 대표이사는 1기 발전위원회(2024년), 2기 발전위원회(2025년)에 이어 이번 3기 발전위원회(2026년)까지 3년 연속 광주장애인체육회 발전위원회 추

진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발전위원회는 지역 기업·일반 후원인 100인 모집을 통해 1기(1억800만원), 2기(1억1200만원)의 후원금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광주 장애인체육 발전에 힘쓰고 있다. 올해 역시 정선교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발전위원회 3기 추진단’을 결성했다.

이번 후원금은 우수 장애인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 지원, 국가대표급 선수 국제대회 참가비 지원, 꿈나무 장애학생 선수 및 사각지대 저소득 선수 육성지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지 격려금 및 강화훈련비 지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형렬 대표이사는 “발전위원회 1기부

터 장애인체육회와 인연이 돼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선수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광주 장애인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이서이엔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수행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정형렬 대표이사는 그간 지역 내 취약계층 후원, 스포츠 인재 육성 등 사회적 통합과 포용에 기여해 지난해 10월 국회의원추천자 12명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광주시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 GGN 글로벌광주방송-강진군문화관광재단 협약 문화·관광 홍보...외국인 참여 확대 힘 모으기로

GGN글로벌광주방송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지역 문화·관광과 외국인 참여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GGN글로벌광주방송(사장 윤도한)은 지난 11일 강진군문화관광재단과 지역 문화·관광의 가치 확산과 공공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광주방송이 보유한 외국어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활용해 강진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주민·관광객·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공공 소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방송 프로그램 출연 및 콘텐츠 제작 협력, 글로벌광주방송의 외국어 방송 및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문화·관광 홍보, 지역 축제 및 행사에 외국인 참여 확대 지원, 각 기관의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미디어 홍보, 기타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광주방송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방송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강진 지역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적극 소개하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관광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와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에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 “우리 쌀을 소중히”...전남도, 백설기데이 맞아 쌀 소비촉진 나서

### 남양중 학생들에 백설기 나누는 ‘천원의 아침밥’ 추가 지원 등 전남쌀 소비 확대 지속 추진

전남도가 백설기데이(3월 14일)를 앞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쌀 소비 촉진에 나섰다.

전남도는 12일 무안남양중학교에서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학생과 교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백설기데이 기념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쌀로 만든 백설기와 두유, 아침밥 먹기 홍보 팸플릿 등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나누며 쌀 중심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아침 결식을 이 상대책으로 높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형성을 강조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백설기데이는 우리 쌀의 가치와 소비 확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2년 지정된 기념일로 올해 15주년을 맞았다. 전남도는 매년 농업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전



전남도는 12일 무안남양중학교에서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학생과 교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백설기데이 기념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다.

남쌀로 만든 백설기를 나누는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남양중학교 학생들은 “화이트데이는 알았지만 백설기데이는 처음 들어봤다”며 “사랑보다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받아 의미 있고 아침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백설기를 들고 사진을 찍어 공유하며 행사에 참여했다.

전남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쌀 소비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 정부 지원금 외 추가로 1000원을 지원해 전남쌀로 만든 밥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직거래 장터 운영과 대량 소비처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통

해 전남쌀 소비 기반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박상기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백설기데이를 통해 우리 쌀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쌀 소비 촉진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당구 천재’ 김행직, 2년 연속 진도 홍보모델 위촉

진도군은 최근 ‘당구 스타’ 김행직 선수를 진도군 홍보모델로 재위촉했다.

김행직 선수는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당구의 지력을 입증해 온 대표 선수로, 뛰어난 집중력과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진도군은 김행직 선수의 역동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관광, 농수 특산물, 문화예술 등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김행직 선수가 진도군 홍보모델로서 활동하며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진도’, ‘도전하는 진도’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김행직 선수의 성



실함과 도전 정신은 진도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김행직 선수와 진도군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 광주동구불교협의회, 따뜻한 나눔 실천

### 돌봄이웃에 백미 2500kg 후원

광주동구불교협의회가 지역 돌봄 이웃을 위해 쌀달라며 동구에 백미 2500kg(10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동구불교협의회는 최근 청사에서 백미 전달식을 갖고, 지역 돌봄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동구 지역 내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증심사를 비롯해 문법정사, 연화사, 만경사, 화림정사, 안심사, 미륵사 등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백미를 후원하며 불교의 자비와 보시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백미 2500kg(10kg 250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지 증현스님은 “불교의 자비와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돌봄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종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불교의 자비 정신이



광주동구불교협의회가 지역 돌봄 이웃을 위해 쌀달라며 동구에 백미 2500kg을 후원했다. 사진제공=광주 동구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지며 돌봄 이웃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따뜻한 나

눔이 일상에서 실천되는 인문도시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l235@gwangnam.co.kr

## 게시판

- 알림** ▲일기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 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 미만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클레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 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 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지원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은세 (음력 1월 25일)

- 48년생 가정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이다. 60년생 거래처에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72년생 과감하게 실행함이 해결책이 될 것. 84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보게 된다. 96년생 욕심 부린 만큼 손해다. 51년생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 63년생 갖추고 있어야 기회를 수용하게 된다. 75년생 지나친 의존은 귀하게 피해를 준다. 87년생 복잡한 일로 갈피를 못 잡을 수 있다. 99년생 긴 안목을 가지도록 하라. 54년생 심심하지는 않았다. 66년생 노력한 반대의 결과를 낼 수 있다. 78년생 지인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90년생 완일까지 기다리고 결정하라. 57년생 늦 바람이 더 무섭다. 69년생 부동산·영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81년생 친구가 오히려 해를 준다. 93년생 귀하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 49년생 제3자의 말에 따라 좌우될 필요 없다. 61년생 사소한 소문으로 중대한 일을 놓친다. 73년생 일거수일투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85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라. 97년생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52년생 말을 앞세우면 낭패를 볼 수 있다. 64년생 오래전에 빌려준 돈 되돌아올 것. 76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88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55년생 자녀의 관재구설 운을 주의하라. 67년생 잃은 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79년생 무리한 진행은 하지 않음만 못 하다. 91년생 뒷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라. 58년생 아랫사람과 약속을 잊지 말고 지켜라. 70년생 부부 불화가 있었으니 자중하라. 82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하라. 94년생 과감하게 도전하라. 50년생 산 쪽으로 여행을 가라. 62년생 주변에 적이 있는 형상이니 언행 조심. 74년생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이 마무리된다. 86년생 모든 면에서 이익을 얻을 것. 98년생 다 끝난 일이 다시 불거진다. 53년생 문서 변동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65년생 모든 일에 윤이 얹히니 기회를 잡아라. 77년생 지금 근심은 약간 해결되리라. 89년생 돈 보다는 우정을 먼저 생각하라. 56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68년생 근심 사라지고 돈벌이가 수월해 진다. 80년생 몸은 힘들어도 득이 많은 날. 92년생 기만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59년생 배우자와 불화 생겨 심한 갈등 겪겠다. 71년생 추진하는 일이 잘 진행 될 것이다. 83년생 주변이 모두 귀하의 적이다. 95년생 매사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낀다.